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1년 9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이종봉 편집인 허순우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전 화 051-510-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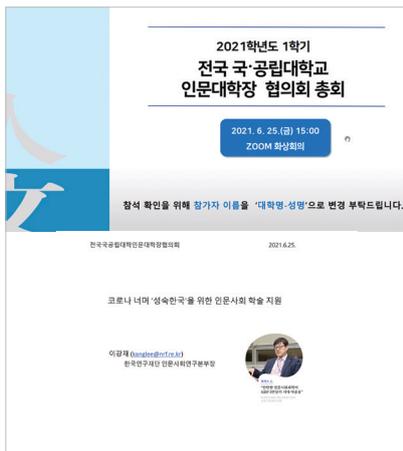
학사일정

2021. 9. 1.(수)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9. 13.(월) ~ 17.(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9. 17.(금)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10. 4.(월) ~ 8.(금)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W)
10. 12.(화)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3선
10. 14.(목)	2021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10. 18.(월) ~ 23.(토)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10. 29.(금)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2선
11. 16.(화)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2/3선
11. 16.(화) ~ 18.(목)	2021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12. 15.(수) ~ 21.(화)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2. 22.(수)	동기휴가 시작
12.23.(목)~22.1.19.(수)	2021학년도 겨울계절수업
2022. 1. 7.(금)	2021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2. 9.(수) ~ 11.(금)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1차 수강신청
2. 14.(월) ~ 15.(화)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2. 16.(수) ~ 17.(목)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2차 수강신청
2. 25.(금)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Contents

02 | 미리내 대상 / 교수동정 03 | 인문대 소식 04 | 학과 · 연구소 소식 08 | 학과 · 연구소소식 / 신간소개 08 | 신간소개

2021년도 1학기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회장 이종봉 부산대 인문대학장) 총회가 6월 25일 오후 3시부터 20개 회원대학 인문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ZOOM 화상회의로 열렸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이종봉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참석 회원대학 학장 소개가 있었고 류재한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공동회장 및 이강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2011년 출범한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는 현재 25개 회원대학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인문학 발전방안 및 인문대학의 현안과 학사문제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토론 하여 인문대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회는 매 학기별로 개최하며, 2학기 정기총회는 오는 10월 말 주관교인 부산대학교에서 이들 동안 개최 예정이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연구재단 2021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

한국민족문화연구소(협력기관 : 인문대학)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최대 3년간 수행할 수 있다. 연구 주제는 최근 양분화와 소외 과정에서 생겨난 異·음을連結해 보려는 희망으로 '아·음의 인문학·부산 복구의 異·음을 잇다'로 정했다. 이를 위해 1년차는 세대아·음, 2년차는 생명아·음, 3년차는 삶터 아·음이라는 소주제로 복구 주인과 만나려고 한다.

본 사업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에 중요하다. 대학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현장성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7월 15일(목) 대학 본관에서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정명희)가 '아·음 통한 인문도시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사업은 북구의 소외계층인 노인, 1인세대, 다문화세대 등과 함께 북구에서 생산된 인문자산을 공유할 계획이다. 방법으로는 인문강좌, 인문체험, 브랜드화 사업 등을 매개로 추진된다. 그리고 매년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영화 혹은 연극으로 제작하여 북구의 자산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평범의
세계

철학과
박효업



“저는 그 어떤 학생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죠. 나쁜 선생님이 기억되고 싶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선생님이기도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십수 년 전 고등학교 교사인 후배를 만났다. 어떤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그녀가 내놓은 대답이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 기억되어야 할까? 아니,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 십수 년 동안 질문만 던지고 있다.

최근에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안테의 법칙’을 종종 불러 내곤 한다. 이 법칙은 북유럽에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하는 가치로 전해진다. 경쟁 지상주의와 능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을 위한 법칙이다. 평범하지 않은 것을 도리어 이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칙이다. 그러니,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고 외친다. 나는, 누구를 위한 수업을 해야 할까? 도대체 수업을 통해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할까? 상념과 회의만 가득하고 성과는 없다.

인디언 체로키 종족은 이 세상에 잡초라는 것이 없다고 본다. 모든 풀은 존중받아야 할 목적과 함께 태어났다. 쓸모없는 풀은 없다. 따라서 잡초라는 것도 없다. 다닐로 키슈는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인간 피조물은 반복불가능하며 모든 사건은 유일무이하다.” 이 때문에 “개개인은 저마다 하나의 별”이다. 평범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

특별함이란 어쩌면 인간이 부여한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연결된 것이나 자신의 소유물을 특별한 것으로 만든다. 자기 손톱 밑의 가시는 우주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이다. 생판 모르는 타인의 자식이 죽은 것은 눈도 깜짝 않는 고통이다.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설명한다. 1인칭 ‘나’의 행위자 시점에서 모든 게 의미 있다. ‘나’가 사라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강그리 의미 없다. 1인칭 시점이 ‘나’의 특별성을 만들고 이 세계를 움직인다. 3인칭 시점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바꿔 버린다.

나는 가끔 주문의 힘으로 나의 삶을 다스린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 관한 모든 것은 의미 없다!’ 실제로 비범함이 거의 없음에도 주문은 잘 작동하지 않는 편이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왜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할까? 평범함을 포장한 특별함에 기대어 겨우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도 여전히 나는, 그저 그런 생각을 열심히 생각한다.

정년퇴직 교수



사학과
박차섭 교수

1993년 3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에 부임한 이래, 금년 8월까지 약 30년간 서양사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미시사 이론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주요 연구 분야인 마키아벨리와 그의 사상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 및 역서 등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문화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이탈리아사학회 등의 직책을 맡아 학계의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명예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신임 교수



사학과
배혜정 교수

2021년 9월 부산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새로이 임용되는 배혜정 교수는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과정을 거쳐 「17세기 후반 잉글랜드 ‘여성논쟁’과 최초의 페미니스트들」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꾸준히 서양 근대 여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근대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여성의 몸 담론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를 지속해왔다.



사학과
이승희 교수

2021년 9월 부산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새로이 임용되는 이승희 교수는 중앙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메이지(明治) 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사학전공 석박사과정을 거쳐 「韓國植民地化過程における駐韓日本軍憲兵隊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헌병 및 경찰부터 재일코리안까지 분야를 확장해 나가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고,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의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사 및 일본문화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파견

이 한태문	국어국문학	1년	2021. 3. 1. ~ 2022. 2. 28.
이 김혜준	중어중문학	1년	2021. 9. 1. ~ 2022. 8. 31.
이 이은령	불어불문학	1년	2021. 9. 1. ~ 2022. 8. 31.
이 윤욱	사학	1년	2021. 9. 1. ~ 2022. 8. 31.
이 문성원	철학	1년	2021. 3. 1. ~ 2022. 2. 28.
이 임상택	고고학	1년	2021. 3. 1. ~ 2022. 2. 28.

2021학년도 2학기 학과장 명단

2021학년도 제2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장	류숙영 교수	2020. 2. 1.
중어중문학과장	남덕현 교수	2019. 9. 1.
일어일문학과장	조강희 교수	2021. 3. 1.
영어영문학과장	김정윤 교수	2021. 1. 15.
불어불문학과장	전광호 교수	2021. 3. 1.
독어독문학과장	인성기 교수	2021. 2. 1.
노어노문학과장	이용권 교수	2021. 9. 1.
한문학과장	이준규 교수	2021. 3. 1.
언어정보학과장	김태호 교수	2021. 3. 1.
사학과장	이수훈 교수	2021. 2. 1.
철학과장	박정심 교수	2021. 3. 1.
고고학과장	이창희 교수	2020. 3. 1.
인지과학 전공주임	권순복 교수	2021. 3.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전공주임	강은지 교수	2021. 3. 1.

인문대소식

국립대학육성사업

2021년 하계방학 동아시아지식학 강좌 개최

인문대학에서는 2018년부터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4차년도에 돌입하여 약 1억 7천 3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사업 목표는 동아시아지식학 구축을 통한 인문학적 학술역량 강화 및 융복합을 위한 학문적 비전 확보이며, 이를 위해 다양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학, 문화, 역사, 철학, 언어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주제로 동아시아지식학강좌를 꾸준히 개설하고 있으며, 하계방학 중 집중강좌 8회, 학술강좌 2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강좌를 비롯하여 ZOOM 실시간 화상회의, PLATO,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지식학 연구소모임 운영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문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학부-대학원-교원 연계 스테디, 지식학 연구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1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29개 주제팀을 지원하며, 지원팀은 2학기에 개최 예정인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들의 연구 다양화와 학제 간 융합, 방법론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관학과	주제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이론을 적용한 학위논문/소논문 쓰기 형태 통사론 연구
중어중문학과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중국 고전문학사 연구 및 고전 작품 선독
일어일문학과	일제강점기 신문 『조선시보』의 기사와 광고 연구 '멀리서 읽기'를 통한 세계문학 연구
영어영문학과	L2 학습자의 어휘력(vocabulary size)과 언어 유창성의 상관관계 영어동사구의 구조적 접근방법
독어독문학과	언어권력과 젠더 - 발화의 의도성과 관습성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티 시대의 문화예술 - 한국과 유럽 문학의 포스트모던현상 연구
노어노문학과	K. N. Stevens(1998)의 음향산출이론 연구 유목민의 눈에 비친 중국 - 서사시 마나스, 세메테이, 세이텍 3부작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조선 근대 문학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 한국민담과 러시아 민담 비교연구
언어정보학과	한, 중 언어 비교 및 대조 동아시아 언어들의 유형론적 탐구 19세기 전후 조선에 온 서양인들의 언어 이해 양상
사학과	고전문헌 강독(남천일록/동국이상국집/만문노당/원대 법률문서 元典章) 한국고대사/한국중세 생활사 세미나
철학과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도덕과 종교 국내 불교학 연구의 동향과 방향 일본 고분시대
고고학과	삼국-통일신라 사료 강독 장승 의례 연구 진·한시대 고고학 II

2020학년도 전기 인문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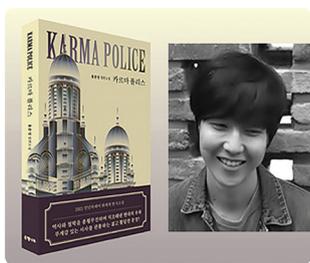
- 김지현**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권경근]
부산 지역어의 음운론적 변이 연구
- 경소력**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박소영]
한중 초점 구문 대조 연구 -분열문과 제시문을 중심으로-
- 이숙자**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배만호]
경어법 번역전략과 목표독자 맥락의 영향 연구
-영한번역본의 인물성격과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 유우창** (사학과) [지도교수 : 백승창]
4-6세기 가라국의 대외관계사
- 박상현** (사학과) [지도교수 : 김동철]
조선시대 도참의 전개와 성격
- 서석구** (철학과) [지도교수 : 이영철]
마음의 규범성과 인과성
- 조문군**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 임주탁]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연구
- 조희영**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 전은주]
한국어 가정 표현의 교육 내용 구성 연구

제18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선정

5월 15일 부산대학교는 개교 75주년을 맞아 '제18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에 사학과 85학번 이오상 KNN 대표이사 사장과 환경공학과 85학번 한정에 환경부 장관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오상 사장은 부울경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열정을 쏟아,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철학과 11학번 홍준성 작가 두 번째 장편소설 출간



철학과 학부 11학번 동문이면서 현재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소설가 홍준성이 두 번째 장편소설 『카르마 폴리스』(은행나무)를 출간했다. 이 작품에서는 가상의 도시를 설정해 인간 역사와 정신사 전반을 재구성해냈다. 탄탄한 구성과 힘 있는 문장으로 거대 서사를 관통

하는 젊은 문장으로 2021 영국 런던 북페어 온라인 저작권 교류 행사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

철학과 04학번 김희연 동문의 철학 번역서 2권 출간



철학과 04학번 김희연 동문이 최근 두 편의 철학 번역서를 출간했다. 『고양이 철학 - 고양이와 삶의 의미』는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와 『동물들의 침묵』 등에서 이성과 진보에 대한 맹신과 인간중심주의를 거침없이 비판해온 정치철학자 존 그레이의 저서로서 인간과 구별되는 고양이의 본성을 논하는 흥미로운 주제의 저서이다. 『왜 여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하는가 - 그리고 경제적 독립에 대한 논의들』은 현재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러시아학 및 동유럽학에 재직 중인 크리스틴 R. 고트시 교수가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칼럼을 발전시킨 저서로서 자유 시장의 결점을 폭로하고 그것이 어떻게 특히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해를 끼치는지에 집중하며, 20세기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역사를 주의 깊게 평가한 저서이다.

고고학과 학예연구사 최종합격

고고학과 대학원 졸업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등 학예연구사에 최종합격을 하였다. 고고학과에서는 매년 다수의 학예연구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고학역사 및 문화 콘텐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I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회 상반기 전국학술대회

한국문학회와 국어국문학과의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6월 18일 부산대학교 인문관 시습관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의 1부는 학문후속세대의 발표와 기타 자유주제 발표로, 2부는 “한국문학과 증오”라는 기획주제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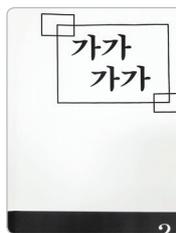


2021학년도 대학원학술상 수상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백혜린 박사과정생이 「대학원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우수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일반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위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상을 받은 백혜린 학생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



2021학년도 국어국문학과 잡지 발간



국어국문학과와 잡지 동아리에서 2021년 2월 “가가가가” 2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운문 및 산문, 영화 후기 및 맛집 후기, 웹툰 등 인문대 학생들의 창작물로 채워져 있으며,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조교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가가가가”는 2020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겨울 발간될 예정이다.

I 중어중문학과

저명학자 초청 특강



중어중문학과에서는 6월 3일 저명학자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초청 강연자 김명구(명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중국문학 속 속도시(항주)와 사랑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I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월 9일 갓 입학한 21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비대면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신입생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우리 대학의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돕고자 하였으며, 대학 생활에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주체적으로 현명하게 대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려하였다.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4월 17일 일어일문학과와 대한일어일문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추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연구 환경에 대한 변화를 공유하고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본 연구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다나카 유키리(니혼대학교) 수와 서경식(전 도쿄경제대학교수)작가의 초청강연 및 일본어학·일본문학·일본학 등 분야별 발표와 기획테마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I 불어불문학과

2021 불어불문학과 졸업생 특강

5월 10일 불어불문학과 정수연(07학번, 부산테크노파크, 수석 연구원)과 정유진(07학번, Savoirs des Peuples-Sdplab, Product development manager) 졸업생의 취업 특강이 화상강의로 진행되어 불어불문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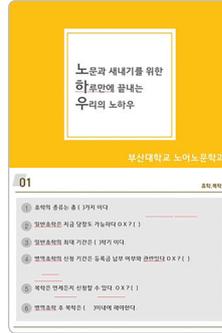
I 독어독문학과

오스트리아 대사 내외 독어독문학과 및 학교 방문

4월 30일 양거출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내외가 본 학과를 방문하여 독어독문학과장과 환담을 나누었고 뒤이어 총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독어독문학과장은 양국 간 연구자 교류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고, 대사는 언제라도 오스트리아 학자 초청 시 여비지원을 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10월 하순에는 대사의 요청에 따라 오스트리아 여류시인 아이칭어 Ilse Aichinger의 시화전을 인문관 1층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독일어 어학능력 인증서 ÖSD (Österreichisches Sprachdiplom Deutsch) 라이선스를 독어독문학과에 부여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I 노어노문학과

21학번 신입생 대상 “노하우” 행사 진행



5월 28일 21학번 새내기를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의 이름은 '노하우'로 '노'문과 새내기를 위한 '하'루만에 끝내는 '우리'의 노하우로, Zoom으로 진행되었다. 휴학의 종류와 신청 기간, 계절학기 이수와 금액, 부산대학교 캠퍼스, 러시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상반기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최

러시아센터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유라시아 분야 전문가와 외교 관계자, 기업인, 방송인 등을 초청하여 2021년 상반기 유라시아 아카데미를 공동 진행하였다. 총 4회 중 마지막 강연이 5월 13일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강연은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연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했던 방송인 일리아 벨라코프, 강연 제목은 '유라시아를 여는 문, 극동의 작은 나라'였다.



I 한문학과

2021 온라인 신입생 환영회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신입생환영회를 4월 2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다. 매년 3월 초 답사와 겸하여 개최 되었던 신입생 환영회를 온라인으로 옮겨 21학번 신입생과 재학생, 교수님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게임을 즐기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2021 학부 졸업논문발표회



6월 4일 4학년 학생들 25명과 교수님,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졸업논문발표회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쓴 논문의 주제 선정 과정, 논문요약, 사회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문학과 BK21 FOUR 학술세미나

한문학과 BK21 FOUR 사업단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 로컬지식학 전문가 교육연구팀에서는 한문학과 BK 참여대학원생 및 부산대 구성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3월 ~7월, 총 10회의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0강~19강의 세미나를 통해 한문고전번역·동아시아학로컬지식학 분야에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 방법 및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참여 대학원생들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의	주제	강사	시간
1001	『고려사』	김성환	2021년 3월 15일
1002	『고려사』	김성환	2021년 3월 22일
1003	『고려사』	김성환	2021년 3월 29일
1004	『고려사』	김성환	2021년 4월 5일
1005	『고려사』	김성환	2021년 4월 12일
1006	『고려사』	김성환	2021년 4월 19일
1007	『고려사』	김성환	2021년 4월 26일
1008	『고려사』	김성환	2021년 5월 3일
1009	『고려사』	김성환	2021년 5월 10일
1010	『고려사』	김성환	2021년 5월 17일

I 철학과

2021학년도 철학과 콜로키움 개최

5월 20일 인도철학(불교철학) 전공의 박효엽 신임교수 기념 발표로 진행된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범아일여(梵我一如)는 어떤 종류의 생을 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도철학의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을 배단따 철학 뿐만 아니라, 우빠니샤드 철학, 불교철학, 힌두교 철학을 관통하면서, 관련된 주요 개념(내부화, 등치-연결, 매개우주)을 통해서 범아일여 사상이 갖는 중요성과 전망을 알 수 있었고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21년 학부 <새벽의사람> 웹진 제호 발간

1989년~1991년, 2005년도 총 6차례 발행되었던 철학과 학부생 문집 『새벽의 사람』이 2021년 학생회를 통해서 재발간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년 디지털에 친숙한 Z세대답게 6월 4일 『새벽의사람』 웹진 시집 1: “나, 여기, 있다”(https://dawn2021.creatorlink.net)이 온라인상에서 먼저 발간되었다. 온라인상의 웹진 창구를 통해 철학과 학부생들의 다양한 글이 반영되고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I 사학과

저명학자 초청 특강 - 문화의 정치사, 정치의 문화사

5월 7일 김석환(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강연에서는 몽골제국의 칙령(명령문) 제도가 문자화되고 작성되는 방법과 이를 토대로 몽골 통치 집단의 정치적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칙령의 작성에서 언어와 문자를 선택하는 원칙이나, 구두 명령을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신빙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여, 내륙아시아사의 한 단면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몽골제국 勅令制度의 전통과 변용

2021년 5월 7일(금) 오후 2시-4시
제2공학관(재용관) 2103호

김석환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한국-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6월 18일 부산경남사학회(회장 이종봉 교수, 총무 강정원 교수)는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과 공동으로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과 호주, 부산에서 만나다”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 대사의 양국 수교 60주년의 축사를 시작으로, 19세기 말부터 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주 선교사들의 사회사업과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발표와 토론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I 고고학과

2021 국제학술회의 유라시아 고대 네트워크 匈奴와 漢

고고학과 BK21 FOUR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사)중앙아시아학회의 주관으로 4월 30일(금)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및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병행하였다. 국내·외의 유수한 연구진(한·중·일·러·몽)들은 ‘匈奴와 漢’을 통해 유라시아 고대 네트워크를 현재까지 이어지게 만든 획기를 형성하였다.



2021년 한국고고학회-국립문화재연구소 공동주최 필드캠프

한국고고학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고고학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필드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는 고고학전공 학생들에게 현장 조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3주(6월 28일 ~ 7월 16일)간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학부생 4명이 '경주 쪽샘', '김해 금관가야 추정 왕궁지' 유적 조사에 참가하였다.



I 점필재연구소

<2021년 점필재인문아카데미> 행사 개최

일시	장소	행사명
2021.05.06. ~2021.05.27.	예림서원	전통과 현대의 만남과 소통 (1강~8강)
2021.06.03. ~2021.06.25.	예림서원	밀양 서당의 일상과 풍경 (1강~4강) 밀양의 문학공간 영남루와 한시 (1강~4강) 밀양의 고문서와 선비의 일상 (1강~4강)



I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학술행사 개최

[학술세미나] 낙동강 정체성과 열린 지역학

- | 일 시 2021년 3월 30일(화) 16:00
- | 장 소 공동연구소동 805호 세미나실
- | 강연자 박승희(영남대 교수)

[학술세미나] 서부산 낙동강의 문화지도

- | 일 시 2021년 4월 15일(목) 16:00
- | 장 소 공동연구소동 805호 세미나실
- | 강연자 구모룡(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서울, 권력도시> 그 이후 이야기

- |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15:00
- | 장 소 인덕관 대회의실
- | 강연자 토드 A. 헨리(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이고 역사학과 부교수)
- | 주 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 후 원 대학혁신지원사업



家在何處?—美國華人小說中的雙重他者性與文化身分認同

뤼샤오린(呂曉琳) |臺北: 秀威資訊 | 202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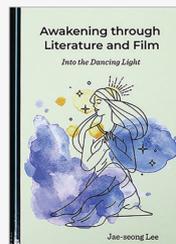
이 책은 화인이주자문화와 문학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미국화인소설에 보이는 이중적인 타자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혼종, 배척, 중화, 연속이라는 네 단계를 거치면서 정체성의 혼돈에 처한 화인 이민자들의 복잡한 사상과 정서, 그리고 서양의 패권 언어와 끊임없는 직면 속에서 화인이주자들의 목소리를 내며 주류 사회의 진입과 세계 공민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동서양의 문화 충돌과 융합을 통해서 제3의 공간에서 다원화된 문화의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二二八·「物」的呢喃》Whisper of Relics : the stories behind 228 related objects

왕즈치(翁智琦) 외 |臺北: 二二八事件紀念基金會 | 20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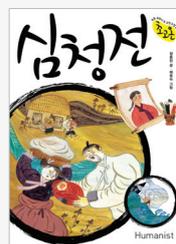
이 책은 타이완의 젊은 작가들이 228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지닌 자료들-일상의 물건들(objects)을 선별하여 228사건을 서술한 논픽션 작품이다. 라디오, 쌀포대, 백신, 국어교과서, 판화, 오징어죽, 인수 의원의 간판, 일기, 도서목록, 보고서, 기념비, 배상신청서 등 12개의 물건을 전주(前奏)로 삼아 228사건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쉽게 228사건을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보다 깊이 228사건을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문학과 영화를 통한 깨달음

이재성 |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2021. 6.

『Awakening through Literature and Film: Into the Dancing Light(문학과 영화를 통한 깨달음: 춤추는 빛 속으로)』는 서양의 이성주의의 전통을 넘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현대 문학과 예술비평이론 분야의 주류인 포스트모던 윤리철학,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불교, 특히 선불교 사상에 입각해 문학작품의 독자나 영화관객이 미적 송고의 감각을 통해 작품이 가리키는 궁극적 현실을 일견(一見)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심청전(초고온 시리즈)

정출현 글, 배중숙 그림 | 휴머니스트 | 2021. 1.

이 책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심청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온작품으로 엮은 것이다. '초고온(초등 교과서 속 고전소설 온작품 읽기) 시리즈' 가운데 5권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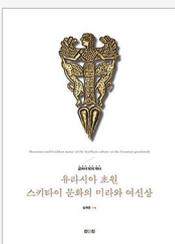
『조선에서 만난 원제국 법률문서』
조원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2021. 5.

국내에서 발견된 세계 유일본 『지정조격』은 잔본으로서 전권의 7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어 원제국에서 법전을 편찬할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13~14세기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통치하에 반포되었던 만큼 『지정조격』은 원말에 편찬된 법률문서로서 사회-문화-경제-군사-지방행정 등 원제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법제사적으로 중요하다. 본서를 통해 13~14세기 원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몽골이 통치하던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문화연구 1983 이론의 역사에 관한 8개의 강의
김용규 | 현실문화 | 2021. 2.

『문화연구 1983: 이론의 역사에 관한 8개의 강의』는 1960년대부터 1983년까지 문화연구의 문제의식, 형성 과정, 영향을 주고받은 다양한 이론을 망라하여 문화연구의 이론적 역사를 정리한 책이다.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라와 여신상
김재운(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강의전담교수) | 진인진 | 2021. 5.

이 책은 유라시아 초원의 주요 문명인 스키타-시베리아 문화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미라를 중심으로 한 인간형상물 관련 연구 성과를 풍부한 시각자료와 함께 정리한 역작이다. 동아시아에 국한된 시선을 흥안령 산맥 넘어 유라시아 초원까지 확장하여 그 지역에서 융성했던 스키타이 문화를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역 속 세상, 세상 속 주역
정해왕 | 교학도서 | 2021. 2.

이 책은 『주역』 64괘가 하나의 스토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주역 번역서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주역』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사에 빚대어 이야기 할 때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문의 모든 글자를 세상사를 해석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야니나 로(지은이), 조창오(옮긴이)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2021. 2.

이 책은 독일 철학자 야니나 로의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연구서를 번역한 것으로 현재적인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초의 기술철학은 인간학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이후 기술철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 바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학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철학적 사유의 의미는 전통적인 인간학을 기술에 대한 반성과 접목시킨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에마누엘 레비나스(지은이), 문성원(옮긴이) | 그린비 | 2021. 8.

이 책은 완숙기의 레비나스 사유를 펼쳐 보이는 저작으로, 이른바 레비나스 철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전쟁과 갈등이 자기를 고수하려는 존재-사이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며, 자기중심성의 원천인 '존재'의 전형을 바로잡고자 한다. 나아가 타자는 '나'라는 주체의 기원이기에, 타자를 외면하지 않고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며 타자의 잘못까지 감내하는 책임이, 망가진 삶의 근본적 면모를 회복하는 길임을 논증하고 있다.



유토피언 제너레이션
니컬러스 브라운(지은이), 김용규·차동호(옮긴이) | 현암사 | 202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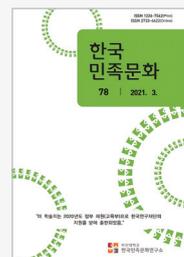
우리시대의 주변/횡단 총서 13권 <유토피언 제너레이션> 발간



코기토 94호 발간
2021. 6.



로컬리티 인문학 25호 발간
2021. 4.



한국민족문화 78집 발간
2021. 3.